

4 종합

# RISE 사업단 연차평가 ‘최우수’...학생 체감도는 ‘아쉬움’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우리학교 RISE 사업단이 2025학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국제캠 ‘매우 우수’, 서울캠 ‘우수’ 등급을 받았다. RISE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대학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도록 한 사업이다. 양캠 모두 예산 확보와 지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냈다.

서울캠은 ‘실무형 핵심 인재 양성’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금성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정규 교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했다. 한 학기 동안 기업 실무를 익히고 학점을 받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비롯해,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세 갈래로 특화해 운영했다.

구체적 분야는 지역 기관과 함께 동네 현안을 푸는 지역상생(L), AI·바이오·로봇 등 5대 기업과 협력하는 전략산업(I), 해외 기업과 연계하는 글로벌(G) 분야다. 여기에 서울시 주요 산업 수요에 맞춘 트랙형 전공 교과목 9개(S-클러스터 연계 교육과정)도 개설해 운영했다. 이외에도 사업단이 참가 학생을 모집한 ‘Smart Life Week(서울시 주최 AI·스마트시티 국제 행사)’ 서포터즈 등에 지난 1년간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국제캠은 판교 테크노밸리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지원에서 강점을 보였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반



우리학교는 지난 3월 반도체 기업 솔브레인과 협력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경희판교VI캠퍼스’를 개소했다.

(사진=경희판교VI캠퍼스 제공)

도체 기업 솔브레인과 협력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경희판교VI캠퍼스’를 개소했다. 이곳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코워킹 라운지와 더불어, 초기 스타트업이 독립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실 등 실질적인 창업 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MVP) 제작, 투자자 앞에서 성과를 선보이

는 데모데이, 펀드 매칭,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CES)를 통한 글로벌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5C’ 보육 체계를 갖췄다. 현장실습학기제에는 1년간 300여 명이 참여해 반도체·AI 등 미래성장 산업 기업과 연계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일반 학부생이 체감하는 혜택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서울 사업단은 “RISE 전환 이후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 중심의 ‘간접 지원’에 무게가 실리면서, 과거 활동비나 장학금 등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던 ‘직접 지원’ 시기보다 학부생의 체감도가 다소 낮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대상의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도 아직 구축되지 않아, 학부생 창업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멘토링

등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캠 역시 “판교VI의 직접 혜택은 대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기창업자와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우선 주어진다”며 “아직 창업팀을 꾸리지 않은 학부생은 창업교육센터의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AI 특화 무상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인프라를 직접 활용하기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 2학기 예비군 전입 신청, 놓치면 동원예비군 훈련 갈지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8일부터 15일까지 2학기 복학 신청 일정에 맞춰 학생예비군 전입이 시작된다. 2박 3일 동안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동원훈련 1형’이나 하루에 8시간씩 4일간 출퇴근 형태로 진행되는 ‘예비군 동원훈련 2형’과 달리 ‘학생예비군’은 하루 동안 8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학생예비군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편성돼 훈련 시간단축 혜택을 받는 제도다. 학업

보장을 위해 교내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 기본훈련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도 전입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반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매년 나온다.

국가에서 내린 동원예비군훈련이 7월에 잡힌 학생들은 2학기 복학 예정이라면 훈련에 갈 필요가 없다. 7월 훈련 대상자들은 곧바로 학생예비군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캠 예비군연대본부 손성호 담당 직원은 “전체 학생의 80%는 문제가 없지만 20% 정도는 잘 몰라서



양캠 예비군연대본부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예비군을 가지 못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

면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6월에 훈련 일정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예비군에 편성될 수 없다. 이유는 병무청 규정 때문이다. 8시간만을 부과하는 학생예비군 혜택에 더해 ‘예정 복학’까지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 실질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병무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 담당 또한 “동원훈련 일정이 7월 전으로 잡힌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학 전 2차 동원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학생예비군 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년 동안 주어지는 3번의 예비군 개인 차수 중 1차에 이어 2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고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대학으로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훈련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손 담당은 “각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일부 상근 예비역 또는 행정병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무단 불참한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학교 예비군연대본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2학기 학생예비군 일정은 11월 초로 계획된 상태다.